

기아차 사상 첫 생산·판매 200만대

100만대 이후 6년 만에 2배 성장

광주공장 연간 40만대 돌파 무난

기아자동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생산·판매 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차는 15일 올들어 지난 14일까지 내수 45만7783대, 수출 154만7043대 등 총 200만4826대를 판매했고, 생산은 지난 1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132만5136대, 해외 공장 67만6222대 등 총 200만1358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 중 올해 200만대 이상을 생산해 판매한 곳은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 혼다, 뉴산 등으로 기아차는 피아트

와 르노를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올해 말까지 생산·판매 모두 2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4년 생산과 판매에서 처음 100만대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2배 성장을 일궜다. 6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자동차시장의 산업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1.9%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아차의 성장 속도는 눈부시다.

사상 첫 200만대 돌파에는 광주공



올들어 11월 말까지 광주공장의 누적 생산량은 36만4000여대로 그동안 연간 생산 최고 기록이었던 2007년의 34만5689대를 1만8000여대 초과했다. 총율이 14년3000대, 스포티지R 9만5000대, 봉고트럭 8만3000대, 뉴카렌스 4만여대 등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당분간 광주공장의 월별 생산 신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목표인 연간 40만대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디자인 및 브랜드 경영,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을 통해 생산과 판매 모두 200만대를 넘었다”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청산팬 배당 불이익’

광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5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금광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광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 2020년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여 재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의 항고가 없는 경우 확정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보권자들과 확정 채권자들

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90%와 97%에 달하는 점과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이들 채권권들에게 회생계획안에 의한 벼랑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강제인가 사유를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미확정 회생채권자를 역시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분담해 채무자에게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재무를 변제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광주유통센터

내년 3월께 문연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농협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광주일보 12월9일자 8면)가 내년 3월께 오픈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15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호수공원 건너편에 지상 1층·지하 3층 규모(연면적 4만5769㎡)의 호남 최대 농산물도매물류기지인 광주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며, 내년 3월

께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17.48 (+8.43)
▼ 코스닥지수	514.69 (-0.31)
▲ 금리(국고채 3년)	3.43% (+0.13)
▲ 원·달러 환율	1,154.80원 (+14.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iCOOP생협 소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유기농 우리밀로 만든 우리나라 대형 지도 케이크를 공개. 지도위의 국내 주요 밀 생산지역에 깃발을 꽂아 우리밀 생산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사전 톡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톡소무’ 5일 섭취후, 99.9% 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장(鶴)이 건강 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장(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장(鶴) 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야 건강한 장, 튼튼한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톡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쑥!! 까스도 쑥!! 요즘 ‘톡소무’ 덕분에 살 맛입니다.

흔히 잘먹고, 잘싸고, 잘지면 비고적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찾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솔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톡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힐없이 후련할 줄이야! ‘톡소무’ 멀기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톡소무(장(鶴)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슬기롭고, 까스명수, 우형첨성제로 알리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톡소무’는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헤마토분증제·아이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난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 드립니다.

삼성제약 ‘톡소무’는 심여를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간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향한 보조로 5일간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톡소무

■ 지경부 새해 업무보고 주요내용

무역 1조달러 시대 원년 대·중기 동반성장 가속도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열리는 내년에는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완비하는 쪽에 정책 역량이 모일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 정책의 입안보다는 기존 정책의 성실한 수행에 초점을 맞춘 지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수출 5130억 달러, 수입 488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선진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최근 가동에 들어간 동반성장위는 내년 초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한 뒤 주요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사의 체감도를 평가해 11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아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도록 집중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1분기에 후보군 30개를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후보기업 30곳 선정

‘지역스타컴퍼니’ 투자유치 적극 지원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제도상 특례를 페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130여 개 중 ‘지역 스타 컴퍼니’ 200개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기업공개, 해외진출 등을 돋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관련해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고위급 레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가나와 에티오피아, 카메룬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신설하는 등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하기로 했다.

건당 1000억원 내외 투자가 필요한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내년 1월 신시장창출형과제 5~6개를 선정해 최대 7년간 7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내년 7월 예정대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지경부는 이어 성장호르몬제, 유방암치료제 출시

■ 지경부 내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동반성장 협력확산

- 11월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
- 1분기중 월드클래스 300 후보기업 30개 선정
- 중소기업 구조개선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 도입
- 민관합동 산업단지 환경친선 펀드 600억원 조성
- 2분기중 지역 스타 컴퍼니 200개 선정
- 지역 서비스기업 육성방안 마련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방신증설 투자기업에 확대
- 지역증권의 ‘신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 광역권별 ‘신학 현장지원단’ 가동
- 청년·여성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패션산업 육성
- 대구·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융합·녹색산업 선도

- 2분기중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동반육성 전략수립
- 수출용 융합이동장비 25개 품목 육성
- 스마트케어사업 및 U-헬스케어 시범사업 실시
- 중증형금전기자 개발 착수
- 융합신재료 패스트트랙 인증도입
- 수입상위 100대 부품소재 핵심기술 획득전략 추진
-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입법연장
- 온실가스 배출 감축지침법 제정
- 온실가스 감축기술 미스터플랜 수립
- 국가 지원순환 촉진전략 수립
- 지방적 자원생산 목표관리제 시범실시
- 석유기초 자주개발률 13%·신전략광물 개발률 10% 달성
- 허유금속 비축규모 13.5일분으로 확대

무역 1조 시대, 선진경제 구축

- 7대 유망 신호사업 진출현역 추진
- 한·중 투자협력포럼 창설 추진
- 러시아·인도 등 신규 지역 투자설명회 개최
- 삼부기종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민간 투자유인형 R&D 지원체계 구축
- 기술구제 혁신방안 수립
- 산업현장 수요자형 교육제도 도입
- 제품인전사고조사센터 신설

등 민관 합동의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성과를 본격 도출하고, 3D 내시경 등 융합 의료장비 25개 품목의 개발을着手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침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고, 태양광·풍력 등의 테스트베드 4~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광구 인수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에서 13%로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新)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허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하반기에 완공하고, 비축 규모를 8.1일분에서 13.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소풍닷컴

(주)평화의 섬 제주여행사

크루즈투어(목포, 녹동출발)